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삼국시대 - 토기 다등식(多燈式) 등잔(燈盞) ①

삼국시대 토기 다등식 등잔은 다등식와등(多燈式瓦燈)이라고도 하는데, 3~6개의 등잔이 하나의 연통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등잔 가운데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각 등잔에 일정한 양의 유량(油量)이 유지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등잔은 삼국시대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오리형 토기나 기마형(騎馬形) 토기, 용형[瑞鬮形] 토기, 수레바퀴장식 토기, 집 모양 토기 등 다른 이형토기(異形土器)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이들 이형토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나, 등기구로 보는 견해도 있어¹⁾ 장차 세밀한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1) 우리나라 고미술사학자들은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이형토기에 대해 주로 의례용 명기(明器)로 추정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나, 일제강점기 경성전기(京城電氣)에서 한국의 고등기(古燈器)를 전문적으로 수집한 기사(基辭)의 경우는 등기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그는 이형토기 모두가 안정된 형태에서 한결같이 꼬리 부분 쪽에 구멍[開口]이 나있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점등(點燈)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실용으로도 서도 조금도 자장이 없도록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한전 공보실 편, 《한국의 고등기》, 한국전력주식회사, 1968, 216쪽).

한편,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과 별도로 사진 1, 사진 2처럼 중국 한(漢)이나 낙랑(樂浪) 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이 있다. 이것들은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다등식 등잔의 고행(古形)으로 보이는데, 외형적으로는 언뜻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오지등(五支燈), 칠지등(七支燈) 등으로 불리는 이들 등잔들은 다지(多支)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나뭇가지나 기둥처럼 생긴 고배 형태의 기물(器物)에 등잔을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더러 사진 1처럼 따로 등잔을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등잔들은 조명도구의 사용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신라나 가야 지역의 연통관 다등식 등잔보다 훨씬 앞선 시대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 3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질(硬質)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5개의 등잔이 한 연통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련등(五連燈)'이라고도 한다. 더러 이러한 형태의 등잔 가운데는 고리로 된 영락(瓔珞) 장식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등잔의 형태를 보면 높은 받침 위에 속이 빈 관(管)을 돌리고, 그 위에 밀이

사진1 토기 다등식 등잔// 한(漢) 낙랑(樂浪)시대// 높이 29.3cm// 일본 동아고고학회, 《영성자(靈城子)》 동방고고학 총간 제4책, 1934.

사진2 토기 다지등(多支燈)// 한(漢) 낙랑(樂浪)시대// 대동강 지역 출토// 고적조사특별보고 제4집.

사진3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18cm, 지름 24cm, 등잔 입지름 8.5cm, 밑지름 11.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6쪽 인용.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뚫려 관과 통하는 잔을 엮어 결국 잔 하나에 물을 부으면 모든 잔에 물이 수평으로 차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 이것이 등잔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등잔은 3단의 방형(方形) 구멍이 있는 받침의 윗부분이 넓게 퍼져서 여기에 가는 관이 연결되고, 관 위에 5개의 잔이 얹혀 있다. 잔 표면에는 2소씩 음각선이 있을 뿐 특별한 장식은 없다.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당당한 기품이 돋보인다.

사진 4와 사진 5는 경주 금령총(金鈴塚)에서 출토된 한 쌍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금관(보물 제338호)에 금령(金鈴 :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금령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꾸미개와 마구, 금동함(金銅盒), 쇠술, 칠기(漆器)와 기마인물형토기, 배모양토기 등의 용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등잔의 형태를 보면 몸체가 크고 깊은 고배(高杯)처럼 생긴 구연부에 5개의 작은 잔을 엮어 만들었다. 보통의 고배와는 달리 구연부는 속이 빈 관(管)을 돌렸으며, 여기에 등잔 바닥의 작은 구멍과 서로 통하게 하였다. 고배 형태의 몸체에는 고리를 이어 4개의 하트형 장식(영락)이 달려 있으며, 등잔의 받침 부분에는 2단의 장방형 투창(透窓)이 뚫려 있다.

사진 6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6개의 등잔이 연통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통관의 아랫부분에 기대(器臺)가 붙어있다. 등잔의 몸통부분에는 사각형 구멍이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 3개의 영락 장식이 붙어있다. 굽다리 부분에는 2단으로 엇갈려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에 가로선이 둘러져 있다. 고배 형태에 6개의 등잔이 붙어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사진 7**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등잔이 일부 파손과 결손이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를 가늠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고적조사특별보고 제4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조선유적유물도감》 신라편, 1991.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록》, 2002.
 일본 동아고고학회, 《영성지(營城子)》 동방고고학 총간 제4책, 1934.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4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6세기// 높이 16.4cm// 경북 경주시 노동동 금령총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조선유적유물도감》 신라편, 1991.
 사진5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6세기// 높이 16.4cm// 경북 경주시 노동동 금령총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0. 12. 8 국립중앙박물관 필자 촬영.
 사진6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16.9cm, 입지름 17.5cm, 밑지름 9.6cm//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록》, 2002, 95쪽.
 사진7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신라)// 입지름 15cm, 바닥지름 14.5cm, 높이 16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